

20240627 설교자 회의(이기영)

1. 본문: 민수기 9:15~23절

제목: 임재의 표징

- 대지 1. 사막에서 볼 수 없는 구름
2. 구름을 본 자의 순종

한줄 요약 “사막에서 구름을 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 불가능한 것은 구름이 인간을 인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연구

오늘 본문은 구름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할 때,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지금의 시내산이라는 목적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자연현상은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나타난 구름은 “모세가 산에 오르고 구름이 산을 가렸다”고 표현하며,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구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것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또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면 구름이라는 존재는 자연계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내산은 ‘기압의 차’와 ‘공기 중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구름을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구름은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많이 모여서 대기 중에 떠있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 응결된 수증기가 일정한 곳에 몰려서 구름이 만들어 지는데, 사막에서는 기압차이도 거의 없고, 수증기가 생길만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 진다는 것과 그 구름으로 비가 온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 진다해도 뜨거운 태양 때문에 수증기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구름에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행위이며, 그것이 4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그런 말이 안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월절과 출애굽과 구름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오늘도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

내고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하심이라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 쬐는 곳에 당연히 사라져버릴 구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석유나 휘발유 같은 공급원이 없어도 밤새 불이 타올라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훈련입니다. 불안한 것을 붙잡아야하는 운명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안정적인 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옵니다.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한줌도 안되는 구름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이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초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 본문: 민수기 14:26~38절

제목: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대지 1.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

2. 생존한 세대

한줄 요약 “가나안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과 같다”

연구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과 불순종이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보여 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공의와 사랑을 보이신 곳을 찾아보면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으나, 그 명령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녕 죽으리라'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심판을 받아야 죽어야할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를 주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의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구약에 가장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 10명이 부정적인 반응과 애굽으로 도망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대한 자들’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너무 작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도 거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고, 이 비교는 하나님을 작게 여긴 것이며, 동시에 업신여기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원망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십 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죽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부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가인과 아벨’을 자녀로 주심으로 그들에게 ‘용서가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신 것’처럼,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살려주심으로 용서가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전반에 흐르는 옛 세대의 죽음과 새로운 세대의 탄생이라는 페러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용서와 새로운 생명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심판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공의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부활하시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덜 자비롭고, 덜 긍휼하신 분이 아니며, 신약에 와서 더 사랑이 넘쳐지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하루 하루 생명을 낳는 약속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은 이해 속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3. 본문: 민수기 21:4~9절

제목: 바라봐야 할 곳

대지 1. 호르마

2. 놋뱀

한줄 요약 “신자가 바라봐야 할 곳은 잠깐의 승리가 있던 호르마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징표인 놋뱀이다.”

연구

호르마는 민수기 13~14장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간에 첫 번째 군사적 대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전쟁을 불허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찾은 호르마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멸망'시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옛 세대가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도 잠시 바로 불평하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앞서 봤던 희망들이 신속하게 뭉개버리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로 가기 위해 에돔 땅을 지나가려 했지만, 앞서서 에돔의 반대로 우회하게 되고 여정은 더 지연되게 됩니다. '우회와 지연'은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애굽을 언급하는 이유는 "구원받음으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구원도 자유도 필요 없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주어 스스로 고민 없이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성숙과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고자하는 인간의 방탕한 마음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죄의 종 노릇할 때 선택한 모든 것은 다 죄일 뿐이었지만 자유인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영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따른 삶에서 나타난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불평은 징벌로 이어져, 불평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뱀뱀을 보내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만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재앙을 그냥 거두시지 않고 모세에게 뱀뱀을 만들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요구에 순종한 자들만이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인간적인 논리와 이론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뱀에 물린 백성들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뱀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말씀의 타당성을 논하지 않고,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다봤을 때, 치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신앙에 따른 징계입니다. 그러나 뱀뱀은 용서이고 긍휼입니다. 불뱀은 이스라엘에게는 불평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하며 배웁니다. 뱀뱀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긍휼이요 용서의 상징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며 훈육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사생자라면 하지 않을 일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불뱀도 주셨다가 뱀뱀도 주시는 여전히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단지 늦밤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문제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4. 본문: 민수기 27:12~23절

제목: 이양된 리더십

- 대지 1. 하나님의 뜻 '양들을 위하여'
2. 순종

한줄 요약 "양들을 위해 이양된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순종했다"

연구

결국 모세는 요단 강 건너의 가나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므리바 샘물 사건을 언급하시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모세는 죽지 않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신명기 34장에 가서야 이루어지며, 아직도 많은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신명기라는 고별설교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시키시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석에 보면 한 유대인 해석가는 '모세가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실 것으로 착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착각을 깨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못 박으시고 그가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이루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모세는 옛사람이었고, 그 옛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에 가나안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해했던 모세였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다만 모세는 끝까지 마음대로 살려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목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의 무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처할 수 없어 금방 죽고 말 것이며, 방향을 몰라 갈 길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을 이끌고,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의 필요를 채워 줄 목자를

세워달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졸라도 보고, 떼도 써보고,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역들을 하는 것으로 모세의 역할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지는 것이, 깊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모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과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도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들의 목자로서 보냄을 입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유리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순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내 소유, 내 권리, 또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내가 갖은 권리 또한 누군가에게 위임받은 것이고, 순종하면서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공로로 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